

사회통합



2012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안철수 교수의 가장 큰 장점은 소통이다. 안교수가 진행하는 청춘토크쇼.

올해의 화두는 소통으로 사회통합

2011년은 계층간 대립과 갈등이 유난히도 심했던 해다. 무상복지 찬반론, 한진중공업 파업사태 등은 여·야간 당파싸움의 좋은 논쟁거리가 됐으며, 보수·진보의 이념대립과 고소득·저소득, 노·조 등 계층·세대간 대립과 갈등은 언론매체들의 좋은 1면 기사거리로 만들어졌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42개 기업의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보면, 다음 대통령의 과업으로 사회통

합을 꼽은 비율이 37.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최고경영자 가운데 거의 절반(43.9%)이 '성장'을 꼽은 것과 대조적이다. 이명박 정부가 사회를 갈라놓기는 했으나, 이를 의식해 서인제 김형식 국무총리는 구랍 30일 신년사를 통해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 사회통합에 최우선을 두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모두가 사회통합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요즘이다.

법륜 스님은 대중강연으로 헤민 스님 트위터로 신세대 소통 도법 스님 사회 소외계층 돌봄

법륜 스님은 대중강연으로

헤민 스님 트위터로 신세대 소통

도법 스님 사회 소외계층 돌봄

법륜 스님(평화재단 이사장·정토회 지도법사)은 2009년 가을부터 2011년 하반기까지 100회에 걸쳐 대중강연회를 개최했다. 법륜 스님은 대도시를 비롯한 중소도시 등지에서 사람들이 겪는 일상의 어려움의 해답을 제시하는 즉문즉설 법회를

진행해왔다. 스님이 이끄는 평화재단은 지난 여름 100일 간 안철수 교수와 박경철 원장을 청춘콘서트의 진행자로 초청해 20·30대들에게 희망과 도전의식을 불러일으켜 세상과 소통케 하고 국가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도 했다.

헤민 스님(美 웹프저대 교수)은 트위터로 다양한 세대들과 소통한다. 팔로워만 8만명이 넘는 스님은 트위터에 짤막한 불경 구절이나 법문을 남겨 팔로워들에게 마음의 안식처를 제공한다. 또한 스님의 트위터 공간은 종교와 세대를 초월하는 곳이다. 가수 루시드폴과 연예인 홍석천·윤복희 씨를 비롯해 신경숙 작가, 홍정욱 국회의원 등 다양한 사람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소통을 시도한다.

이내은 기자

다문화



봉은사에서 진행된 다문화 가정 합동 결혼식. 다문화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사회적 과제다.

다름을 인정할 때 '세계일화'

한국은 이제 다문화 사회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140만 명을 넘어섰다. 이런 사회적 현상에 직면해 불교계에서도 외국이 노동자, 결혼이주 여성, 외국 유학생, 탈북 세터민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2010년 11월 열린 서울G20정상회의에서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로 구성된 '레인보우어린이합창단'이 갈라 디너(gala dinner)쇼 공연을 펼쳐 화제가 됐다. 한국

불교계 주축 한국다문화센터 설립

각 사찰 맞춤형 다문화 복지전개

타종교 비교 미흡, 선교 우려

다문화센터(대표 보선)에서 운영하는 레인보우합창단은 초·중학교 학생 30여 명으로 구성됐다.

한국다문화센터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국민인식을 높이고자 여러 종교단체와 다문화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2008년 12월 4일 설립했다. 불교계에서는 조계종 중앙총회 의장 보선 스님, 김의정 중앙신도회장, 천태종 총무원장 대행 무원 스님 등을 주축으로 설립초기부터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다.

그동안 한국다문화센터는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대학생 멘토링 사업, 다문화 가정 자녀 대학 특례입학, 국회 다문화포럼 설립, 레인보우 합창단 창단, 이중(二重)언어 경진대회, 중도입국자녀 예비학교, 온라인 멘토링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왔다.

특히 한국다문화센터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무원 스님(명라사 주지)은 다문화 가정 돌봄에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다. 스님이 주지를 맡고 있는 서울 천태종 명라사 생, 탈북 세터민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스님은 '만 가구 한 등(懶) 달기'를 통해 세계음식축제 등을 여는 등 다양한 다문화 사업을 펴고 있다. 특히 2009년에는 이주여성들을 위한 '명라빌리지' 쉼터를 개설해 11명의 이주여성과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이밖에 거제 금강사는 아시아권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다문화 음식점 '실크로드'를 개소하는 등 맞춤형 복지에 나서고 있으며,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애주)은 동남아 결혼 이주여성들을 돕기 위한 활동을 4년간 진행해오고 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불교여성 다문화 봉사단을 통해 이주여성을 위한 상담과 한국어 및 한국예절, 음식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 진오 스님(꿈을 이루는 사람들 대표)은 다문화 모자 가족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비용 5억원 모금을 위해 '2011 한반도 횡단308km 울트라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완주에 성공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불교계에서 펼쳐지고 있는 다문화 활동은 타종교에 비해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국내 불자 이주민이 수가 최소 23만 이상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타종교 지원 단체들이 선교를 병행한 활동이 활발해져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김성희 한국다문화센터 사무총장은 "다문화 변모 시점에서 정부의 다문화 사회에 대한 철학적 정리가 시급하다"며 "활동가들의 열악한 여건 개선과, 사업의 지속성 담보되는 운영구조 등의 문제도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영 기자

학문 통섭



2011 동국대 불교학술원이 개최한 간화선세미나에 참여한 해외석학들

응용불교 발전이 기대되는 2012년

최근 불교계에서는 '응용불교'라는 말이 화두이다. 불교적 시각으로 사회를 바라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적용시키려는 현대 불교학의 새로운 시도인 것이다. 이러한 일환으로 불교학 교수와 연구자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응용불교연구에 대해 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 본다.

경제학과 불교 사상을 융합해 연구하고 있는 박경준 동국대 교수는 "현대 사회는

불교+사회학문 융합 활발

불교의 사회 기여 요구 반증

불교학은 어떤 분야와도 접목가능

경제의 시대이다. 경제는 지구촌의 핵심이 됐으며 이것을 떠나서는 어떠한 것도 생각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불교를 접목시켜 불교 경제학, 불교 경영학에 관한 초석을 다지는 연구를 해왔고, 앞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을 예정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경제도 불교도 생활을 떠나서는 어떠한 것도 논의 될 수 없다. 이제는 불교도 참여불교, 민간불교로 나아가는 것이 옳다"고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또 김성철 동국대 교수는 "불교학은 어떤 분야와도 응용가능하다"고 전제하고 "최근 들어 불교를 응용한 상담학 및 심리학이 주목받고 있다. 그리고 이미 동국대에서는 불교사회복지학회가 개설됐고,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불교아동학도 시작됐다"고 설명하며 "불교응용학이 보다 다양하게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교수는 현재 불교와 생물학, 불교와 뇌과학 등을 접목시켜 연구를 하고 있으며, 특히 생물학을 접목시킨 불교적 시각으로 우리 몸의 비밀을 풀어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강대 석감암 교수는 "한국의 불교학 연구는 자기내적인 정체성만을 추구하던 시대에서 외적 자기정체성을 고민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한다"며, "불교학 연구의 사회적 적용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거의 비슷한 단계에 있다"고 지금의 응용불교 현황을 진단했다.

현재 김강대 불교문화연구소에서는 고대 동아시아 불교의 수용과 변용이라는 문제를 당시 불교계 전체의 틀에서 조망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석 교수는 "이 연구를 통해 불교가 자연스럽게 현대 한국 사회, 더 나아가 세계 속에서 추구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최근 20여 년 동안 축적된 연구 성과들로 볼 때, 단기적으로 성과를 기대하기는 무리이지만 전체 속의 불교, 불교 속의 전체를 의식하는 연구들이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승불교에서 보살은 위로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 중생을 제도하는 이상적 수행자상이다. 제도할 중생들은 무명에 싸인 채 지금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가리킨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불교를 활용해 그것이 사회화되고, 저변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학자들의 응용불교 연구가 2012년 새해에는 어떤 결실을 맺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주성원 기자

월간「불광」 제2의 창간!

불교를 통해 무엇을 얻으려 하십니까? 지혜? 행복? 대지유? 아름다운 삶? 함께 나누는 따뜻한 세상? 그리고 또 무엇? 2012년 새해, 창간 38주년을 맞는 월간「불광」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확대된 판형(올컬러)에 유익하고 흥미로운 콘텐츠를 담아 현대적인 감성의 세련된 디자인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팍팍한 삶에 불교가 필요하시다면 든든한 마음의 벗, 「불광」과 함께 하십시오. 당신의 행복이 「불광」의 행복입니다.

특집 / 불교, 웃고픈을 고쳐 매다 ● 강원일기 / 구름을 닮고 싶었던 소녀/진광 스님 ● 우리 집에 안다 / 낙산사-잃어버린 파랑새를 찾아서 ● 한국인의 차(茶) / 불교와 함께 일상에 깊이 스며든 차 문화/지혜 스님 ● Art & Heart / 패션 디자이너 이기향 ● 명장의 고집불통(執拗) / 누비장 김해자 ● 고전 산책 /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월트」, 이미명 ● 사색의 돌 / 2012년 한국사회와 불교의 역할 / 이진경 ● 법인 스님의 병 주고 약 주기 / 그것은 이상이고 이것은 현실이라고? ● 지구촌 불교 성지 / 구법과 전법의 길, 실크로드 ● 불교, 정확하고 명쾌하고 자유롭게 / 무아(無我) / 김성철

월간「불광」 구독 문의 Tel. (02)420-3200 www.bulkwang.co.kr

1년 정기 구독료: 60,000원 1권: 6,000원(은-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1월 할인혜택 ▶ 1월까지 신청해주신 분께 이전의 구독료(1년 45,000원)로 적용해 드립니다.



표지: 이기향 작, 「미안을 향하여」展 'Joy'.

